Arts Friend

1·2
2021
Vol. 241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Contents

Events

울산시립교향악단 04
2021 Masterpiece Series 1

울산시립합창단 05
가곡의 밤 한국&독일

울산시립무용단 06
홍은주 예술감독 겸 안무자 인터뷰

Exhibitions

야외설치조형전 08
빛의 향연

홍은주 예술감독 겸 안무자

야외설치조형전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1년 1·2월호 통권 241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번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김지태
홈페이지 https://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226-8241~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Arts & Story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21 10
천옥자에서 천경자로, 거울 보는 경자

들어는 봤나, 주크박스 뮤지컬? 14

커뮤니티 아트 10 18
아마추어 예술의 재발견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20 22
코로나시대의 지휘 I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10 26
또 다른 세 여자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30
소박한 싯구가 무대에서 노래가 되다

Information

1, 2월 공연 · 전시가이드 34

공연일정 36

전시일정 40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2

유료회원 특별혜택 43

유료회원 가입안내 44

협약점 이용방법 45

회관 토스카 오픈 안내 46

회관 카페 오픈 안내 47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21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2021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3회 정기연주회

최상의 클래스로 최고의 클래식을 선사하는
2021 Masterpiece Series 1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마에스트로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이끄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은 새해를 맞이하여 정기연주인 2021 마스터피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합니다. 힘들었던 작년을 뒤로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새해를 기원하며, 올해에도 마음의 안녕과 위안을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선율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술감독 겸 지휘자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Conductor Nikolay Alexeev)

- 상트페테르부르크 글린카 합창음악학교 및 국립음악원 졸업
- 카라얀 국제콩쿠르, 도쿄 국제콩쿠르, 탈리히 국제 콩쿠르 등 다수 입상
-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역임
-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예술 조감독
-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첼로 박유신
(Cello Yoosin Park)

- 2018 레오시 아나체크 국제 콩쿠르 2위, 안톤 루빈슈타인 국제 콩쿠르 2위
- 2017 드레스덴 국립음대 실내악 콩쿠르 1위
- 2015 브람스 국제 콩쿠르 2위 및 특별상
- 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아카데미 소속
- 현)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예술감독, 2020포항국제음악제 예술감독
- 현) 경희대학교 음대 관현악과 출강중

프로그램

베토벤 / 레오노레 서곡 제3번
Beethoven / Leonora Overture No.3

하이든 / 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Haydn /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휴식 (Intermission)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1번 사단조 작품13 '겨울날의 환상'
Tchaikovsky / Symphony No.1 in G Minor, Op.13 'Winter Dreams'

2021. 1. 29 (금) 오후8시 대공연장 / 티켓금액 :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본 공연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운영알림

1. 공연장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입장 전 증상여부(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3.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체크인 또는 방문리스트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폐기)
4. 공연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가곡의 밤 한국&독일

가곡과 함께 떠나는 겨울밤 여행

서정적인 시에 감미로운 멜로디를 붙이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드는 가곡이 주는 감동은 포근한 음색만큼 따뜻하다.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로 무대에 올려질 이번 〈가곡의 밤〉공연은 한국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한국가곡과 가곡의 정통을 보여주는 독일 가곡으로 구성되었다.
솔리스트로 변신한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모습도 기대되는 이번 공연은 특별히 해설과 함께 진행되어 쉽고 친근하게 감상 할 수 있다.

지휘자 **조은혜**

- 독일베를린국립음악대학 HannsEisler Diplom (합창지휘), 학사(오케스트라) 졸업
- 독일하노버 국립음대(HMTMH) 최고연주자 과정 (합창지휘) 졸업
- 러시아 상페터스부르크 유럽합창지휘협회 (ECA) 국제합창지휘콩쿨 2위
- 2016년 국립합창단 합창지휘 경연대회 1위
- 국립합창단 상임 부지휘자 역임
-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객원지휘

現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

PROGRAM

청산에 살리라, 마중, 그리운 마음, 그리워, 연, 나물캐는 처녀, 바람은 남풍, 세레나데,
O lieb', Widmung, Immer leiser, An Chloe, Ich liebe dich, Gretchen am Spinnrade

2021. 2. 23 (화) 오후 7시30분 소공연장 / 티켓금액 : 전석 1만원

※본 공연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운영알림

1. 공연장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입장 전 증상여부(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3.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체크인 또는 방문리스트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폐기)
4. 공연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홍은주 예술감독 겸 안무자

2021년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과 울산 시민들에게 인사부탁 드립니다.

울산시립무용단 2021년은 직업단체로서의 체계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한국춤 레퍼토리로 울산 시민들에게 춤으로 위안과 위로를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1년은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추진할 공연계획과 새롭게 시도하는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1년 추진할 공연계획에서 기획공연으로는
첫째,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힘내라!울산"을 주제로 태화강 야외상설공연을 통해 일상 속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울산 시민들에게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언텍트 시대에 맞는 작품구성으로 비대면에 초점을 두고 "댄스 필름 울산12경"을 제작하여 울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는 춤과 음악을 담아내어 울산 12경과 춤의 형상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밤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울산시립무용단과 지역예술단체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춤축제로 발전시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넷째, "코로나 치유프로젝트 5개 구군 순회공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을 통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기공연으로는 2021년 신작으로 울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암각화'를 주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푸른고래"(가제)라는 제목으로 리서치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의 대응,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구촌을 강타한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시립무용단 역시 2020년에 기획되었던 모든 공연은 무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무용단 운영에도 상황에 따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2021년 연습 진행에 있어 10명 이내의 조를 구성하여 조별 출근을 합니다. 레퍼토리를 중점으로 개개인의 신체 훈련을 지속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비대면 중심으로 기획된 공연 "댄스 필름 울산 12경"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1년은 극장공연보다는 야외공연으로 지향하여 감염병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공연 "힘내라!울산" 태화강상설공연과 "코로나 치유프로젝트 5개 구군 순회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울산시립무용단의 저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축제를 마련하여 울산시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 무용단, 연희단, 다문화 공연단체 등을 초청해 열린공간에서 전통춤, 창작춤, 현대춤, 타악퍼포먼스, 국악연주, 힙합, 비보이댄스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 여름밤 시원한 축제 별밤춤 페스티벌을 펼쳐낼 예정입니다.

임기동안 시립무용단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가요?

울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관객과 울산 시민들을 위함이라는 사명과 책임이 무대를 거듭할수록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춤을 추는 단원들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칫 익숙해지기 충분한 환경에서 춤추다 보면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단원들 가까이에서 우리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 나아가 직업윤리관까지 상기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감독으로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하여 한국춤의 멋과 흥취를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관객과 마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을 주며 단원들을 돕는 게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는 관객에 대한 예의이자 내가 생각하는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과 울산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원들과 함께 울산 시민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이며, 울산 시민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해 질 거라는 믿음 하에 같이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향연
야외 설치 조형전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올해 1월 29일까지 야외광장 일원에서 '빛의 향연–야외 설치 조형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조형전은 한해를 정리하며 코로나 블루로 힘든 울산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형물은 '2021' 숫자 모양으로 연말 모임조차 힘든 상황 속 가라앉은 도심의 분위기를 빛으로 밝혀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활력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 광장에 설치되었다. 또한 대공연장 벽면과 기둥에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조명장식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에 힐링과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대공연장 벽면과 기둥에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조명장식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에 힐링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실내 전시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설치 조형전은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조형물과 조명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시개요

전시명	야외 설치 조형전
기 간	2020. 12. 1.(화) ~ 2021. 1. 29.(금), 60일간
장 소	중앙광장 일원
내 용	대공연장 벽면 경관조명 및 조형구조물 설치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21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천옥자에서 천경자로, 거울 보는 경자

자신의 얼굴을 먼저 그려 보라는 스승의 가르침

천경자(1924-2015)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고흥보통학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웠고 졸업 후 18세 때인 1941년 동경으로 유학해 여자미술전문학교 일본화부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다. 화가나 미술교사가 되려는 일본 여성들을 위한 이 학교에서 배운 조선 여성도 여럿 있었다. 정월(晶月) 나혜석(1896-1948)이 1913년 입학해 서양화를 배웠고 백남순, 이숙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일본화 전공으로는 천경자의 2년 선배인 정온녀, 1년 선배인 박래현(1920-1976)이 있다. 천경자는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조부(祖父)〉를 출품해 입선했고, 이듬해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老婦)〉가 입상하며 일찍이 재능을 알렸다.

천경자 〈조부〉 1942년(19세),
종이에 채색, 153×127.5㎝,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조부〉는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자신이 읽은 책을 이야기로 들려주며 어린 천경자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북돋아 준 외할아버지를 그린 초상화식 인물화이다. 꽃무늬가 있는 연녹색 방석 위에 투명한 검은색 탕건을 쓰고 흰 저고리, 자주색 조끼, 남색 바지에 연한 회색 대님을 매고 흰 버선을 신은 수척하지만 엄정한 표정의 노인이 정면을 바라보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오른손에 장죽을 들었고, 왼 무릎 앞에는 외조부가 독서를 즐겼음을 나타내는 책과 안경을 그려 넣었다.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단호한 선묘와 깊이감 있는 차분한 색채가 어울린 견고한 인물화이다. 색채가 단순한 그림임에도 호분 활용이 뛰어나 부드러우면서도 견실한 색채 표현력 또한 볼 수 있다. 인물을 설명하는 소도구를 배치했지만 배경은 바닥과 벽도 구분해 놓지 않은 공백이다. 배경이 대부분 생략되어 주인공의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천경자 작품의 한 특징이 이 초기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왼쪽 아래에 '옥사(玉史)'로 서명했는데 이 호는 당시 이름인 천옥자(千玉子)의 옥(玉)과 여성의 존칭인 여사(女史)의 사(史)를 합해 지었을 것이다. 천경자의 어머니도 묵란을 그리고 서예를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호는 연사(蓮史)였다. 옥자에서 경자(鏡子)로 이름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은 그녀가 동경에서 학교 수업 외에 따로 배웠던 고바야가와 기요시(小早川淸, 1899-1948)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일본 전통 인물화 대가인 고바야가와 선생은 당신은 조선인이니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을 더 잘 그릴 것이라고 했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먼저 그려보라고 했다. 그래서 '거울 보는 여자'인 경자로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채색 인물화로 출발한 천경자는 외조부, 외조모 등 처음부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 이후로도 자신이 직접 본 것, 자신의 심정에 맞닿아 있는 대상을 그리며 소재 선택이 관념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너는 조선인이니 조선인을 그리라고 했고 먼저 너의 얼굴부터 그리라고 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경자라는 이름만으로

천경자는 1943년 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귀국해 모교인

전남여고 미술교사로 부임했다. 1946년(23세) 학교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1949년에는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며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화가로 평가받는다. 천경자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계기는 육이오 피난 중이던 1952년 부산의 한 전시회에서 걸었던 뱀 그림인 〈생태(生態)〉 때문이었다. 배경이 없는 투명한 진공의 공간에 35마리의 초록색 뱀이 우굴 거리는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뱀을 소재로 선택했다는 사실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엉켜있는 중심부와 위쪽의 꼬여 있는 두 마리, 오른쪽 아래의 동떨어진 한 마리 등 구도가 잘 짜여 있고, 세부가 지나치게 자세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낸 묘사력 또한 뛰어나며, 초록색을 주조로 하면서 붉은색, 노란색, 흰색을 조화시킨 색채 감각 등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전쟁 중에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천경자는 1954년(31세) 김환기의 추천으로 홍익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천경자 〈생태〉 1951년(28세)
종이에 채색, 51.5×87㎝,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생태〉는 산수나 인물을 주로 다루던 한국화 화단에서 뱀이라는 소재를 선보이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여자가 뱀을 그렸다"는 화제성으로 인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모여들었다고 한다. 천경자는 왜 초록색 독사를 그렸을까? 독사를 예쁜 허리띠인 줄 알고 집었다가 물려 죽은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와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혈육을 잃은 고통, 실패한 첫 결혼과 애증이 교차하는 사랑하는 뱀띠 남자 등의 불행이 뱀 그림의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천경자는 뱀을 그린 이유를 "동기는 오직 인생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였다"라고 했다. 이 징그러운 존재를 한 마리 한 마리 직시하며 그려낸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맞서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이었던 것이다. 〈생태〉는 20대의 여성화가인 그녀가 인생을 정면 돌파하는 용기와 힘을 가졌음을 자신의 무기인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천경자의 작가적 기질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이 작품이 불러일으킬 세간의 구설을 감당할 배짱도 포함된다.

그런 만큼 〈생태〉는 작가가 무척 아꼈던 작품으로 "내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93점 중 한 점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이 기증품을 전시하는 '천경자실'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에는 왼쪽에 '경자(鏡子)' 두 글자와 〈경자(鏡子)〉 인장이 찍혀 있다. 천경자는 대부분의 작품에 이름 '경자' 두 글자를 한자로 써서 서명했다. 간혹 제작연도를 한자로 덧붙이기도 했다. 인장은 드물게 사용했는데 간혹 '천경자', '경자'를 새긴 한문 인장을 찍을 뿐이었다. 한국화가는 물론 서양화가도 호를 사용했던 당시의 관례를 무시하고 여성화가가 자기 이름 두 글자만 써넣는 것은 좀 별나게 여겨졌을 것 같다. 운보(雲甫) 김기창과 결혼해 부부 한국화가로 활동한 선배인 박래현이 우향(雨鄕)이라는 호로 잘 알려진데 비해 천경자는 평생 '천경자'라는 이름만으로 활동했다.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회한의 인생

천경자의 작품 세계에서 기행 회화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가 해외를 여행하며 그린 스케치와 기행문은 1969년(46세)부터 신문에 연재되었다. 외유가 자유롭지 않던 시대였고 여행 자체가 목적인 관광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이국의 풍물을 체험한 여행 당사자가 자신의 그림과 글을 현지에서 국내로 보내는 신문의 한 코너는 큰 인기를 모았다. 더구나 그 주인공이 일찍이 전쟁 중에 시퍼런 독사떼를 그렸던 개성이 넘치는 여성화가인 대학교수라는 점은 미술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대중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천경자가 자신의 그림과 글로 신문 지면을 당당하게 차지하며 독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솜씨는 일찍부터 길러졌다. 그녀는 모교에 재직하며 조선대학에 출강하던 1949년(26세) 호남신문에 연재되던 단편 소설의 삽화를 담당한 일이 있었다. 소설의 내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 그려내야 하는 삽화가로서 어떤 독자보다도 열심히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한 컷씩을 그려야하는 작업량도 만만치 않아 자연히 스케치 실력과 독서 실력이 단련되었던 것이다. 천경자는 30세 때 『문예』지에 수필을 발표했고, 32세 때 동아일보에 글과 스케치를 함께 싣는 지면을 얻었으며 수필집 『여인소묘』 출간했을 정도로 글 솜씨가 뛰어났다.

천경자는 20대 때부터 신문 삽화를 그리며 저널리즘의 속성과 대중들의 호불호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을 갈고 닦았던 것이다. 원고료 수입 또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26세 때 이혼한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천경자는 문학인으로서 한국여류문학인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수필가였고 박경리, 한말숙, 손소희 등의 소설에 삽화를 그려 여성 문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1968년 『여류문학』 창간호와 이듬해 제2호 표지화는 천경자가 그렸다. 천경자는 신문, 문학잡지, 여성잡지 등에 스케치를 곁들여 많은 글을 썼고 수필집, 자서전, 화문집(畵文集) 등 20여권의 단행본을 냈다. 천경자의 책은 인기가 많아 대부분 재판 이상을 찍었는데 솔직한 소재와 감수성 넘치는 문체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천경자는 1969년 8월 첫 장기 외유를 떠나 고갱이 머물렀던 타히티 등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여행했고, 뉴욕의 국제미술교육자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하며 참석한 후, 원래 목적지였던 프랑스에 도착해 그림공부를 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여행하는 9개월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이듬해 4월 귀국했다. 유럽에 있던 10월부터 '타히티 화신(畵信)', '파리 화신' 등으로 이국의 인상을 스케치와 기행문으로 구성한 연재를 중앙일보에 실었다. 이른바 '천경자 기행 화문(畵文)'은 어릴 때부터 미술과 작문이 가장 잘하는 과목이었다고 한 그녀의 두 가지 재능이 대중매체를 통해 빛을 발한 것이다. 귀국 후 '남태평양 풍물 시리즈 스케치'전도 열었다. 여행 스케치로 전시회를 여는 것도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다.

1974년 3월 다시 장기 스케치 여행을 떠나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콩고, 세네갈, 모로코, 이집트 등을 거쳐 프랑스를 6개월 간 여행했다. 이 여행도 '천경자 아프리카 기행'으로 신문 연재와 단행본 간행, 귀국 후 스케치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행 경험과 많은 여행 스케치들은 1980년대에 그녀의 작품 세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천경자의 화문(畵文)이 문학계에서 인정받았던 한 예로 1976년 1월호부터 『문학사상』에 '그림이 있는 자서전'을 매월 연재한 일을 들 수 있다. 총 34회로 3년여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자신의 일생을 그림으로 회고한 7-8점이 매회 들어가는 큰 기획이었다. 이를 위해 그려진 총 254점의 삽화는 영인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천경자는 "초라하기만 한 나의 인생행로를 엮은 수기여서 이른바 자서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림을 그리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아득한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마치 무명이나 모시를 짜는 마음으로 이 자서전 아닌 수기를 엮어 갔었다."라고 한 이 연재를 하면서 1년여에 걸쳐 그린 그림이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이다.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1976년(53세), 종이에 채색, 130×162㎝, 개인 소장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아프리카 여행 풍물화에 자전적 이미지를 결합한 그림으로 기행화이자 풍경화이자 자화상이다. 흰 눈에 덮인 킬리만자로산이 붉은 황혼을 배경으로 멀리 보이고, 노란 들판에는 사슴, 얼룩말, 멧돼지, 사자, 영양, 기린, 코끼리, 이름을 알 수 없는 붉은 머리의 푸른 새 등이 드문드문한 나무 사이에 있다. 색채가 한껏 화려한 이국적 풍경이지만 동물들의 표정과 동작은 침울하게 보인다. 코끼리 등 위에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쪼그리고 앉아 쏟아져 내린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진 누드의 한 여성이 있다. 천경자는 "고독과 상념에 잠긴 채 코끼리 등에 엎드려 있는 나체 여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신이 살아온 오십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심경은 '회한'이었던 것 같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천경자가 스스로 밝힌 그녀의 일생을 보면 철없이 한 결혼과 스스로 강행한 이혼, 기혼 남성과의 연애, 혼외자녀 출산과 양육,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호적 문제, 여러 번의 임신 중절 수술, 5명의 부양가족을 홀로 책임진 여성가장으로서 역할, 창작자로서의 고뇌 등 여성이자 예술가로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이 천경자의 한(恨)과 고독의 근원이고 "자신의 비애와 분노를 즐기며 예술을 구가하고 싶은" 승화된 자학이었을 것 같다.

천경자는 한국화 화단에서 많지 않은 채색화 화가이다. 1년 동안이나 손을 대고서야 완성했던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도

그렇지만 천경자는 한 작품을 몇 달씩 그리며 오랜 시간을 두고 붓질과 생각을 화면에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했고 어떤 작품은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돌가루인 석채(石彩) 안료에 호분과 아교를 사용해 덧칠을 거듭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채색법이 종이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부피감과 질감, 색감을 쌓아올려 밀도 높은 화면을 이룬다. 천경자는 당시 한국화 화단의 수묵화 일변도 경향 속에서 왜색이라는 무언의 폄하를 받으면 꿋꿋하게 채색화를 고수해 자신의 화풍을 이루었다.

슬픈 전설, 나의 전 생애의 얼굴

천경자는 여성 인물을 많이 그렸다. 자화상도 많지만 여성 인물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친 자기 자신인 경우도 많아 '자전적 여성 인물상'이 천경자 회화의 주요 모티브이다.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가 "내가 나 자신의 뮤즈다(I am my own muse)."라고 했듯이 천경자에게 영감을 준 뮤즈 또한 그녀가 제일 잘 아는 주제인 그녀 자신이었다.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듯 천경자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식물로 표현되거나 상관없이, 그림은 나의 분신"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그림은 더욱 그녀 자신이 비춰지는 거울 같다. 몇 단계를 거치며 진화한 천경자의 화화세계에서 단독 여성 인물상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완성되었다.

천경자가 많이 그렸던 단독 여성 인물상의 대표적 전형이 자화상이다. 서구 화가들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자화상은 흔치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윤두서, 강세황, 채용신 등의 자화상이 남아 있을 뿐이고, 한국의 여성화가로는 나혜석의 1928년 유화 자화상이 처음으로 여겨진다. 천경자는 남태평양의 섬을 여행할 때 스케치로 자화상을 여러 점 그렸다.

천경자의 대표 자화상은 1977년(54세) 그린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이다. 32년 전으로 돌아가 22살 과거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다. 대부분의 자화상은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그림인데 비해 특이한 과거형 자화상인데다 사실적이지도 않아 자신의 전 생애의 모습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형으로 보인다. 증명사진 형식의 흉상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정면을 당당하게 주시하고 있지만 표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노란 눈동자의 흰 동공이 어딘지 슬프면서 초연한 느낌을 준다. 인물을 설명하는 소도구는 머리에 왕관처럼 두르고 있는 녹색과 주황색의 뱀 4마리와 가슴 앞 쪽의 분홍장미 한 송이다. 이집트여행에서 보았던 파라오의 지혜와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 장식인 우라에우스(uraeus)에서 받은 영감과 자신의 저항을 그린 〈생태〉의 뱀을 결합한 것이다.

천경자가 인물의 눈을 그리면서 눈동자의 검은 동공을 동그란 흰 점으로 투명하게 남긴 것은 〈길례언니〉(1973년)를 그릴 즈음부터이다.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눈동자의 검은색은 노란색으로 바뀐다. 천경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금가루를 섞어 노란 눈동자를 그리면 더욱 강렬한 빛을 내면서도 슬퍼 보인다."고 했다.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의 흰 동공과 금분 눈동자는 강렬한 슬픔을 내타내는 눈을 그리기 위해 고심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에서 보이는 연한 갈색 조 머리카락, 흰 동공의 노란 눈동자는 깊고 슬픈 시적 정서를 보여주는 천경자 후기 여성 인물화의 특징이다.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년(54세), 종이에 채색
43.5×36㎝,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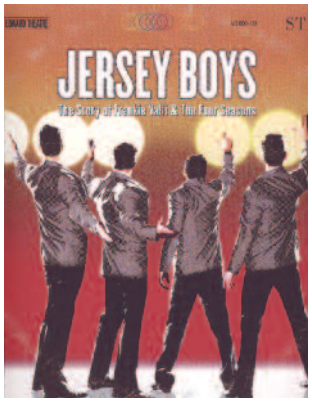
천경자의 만년을 불행하게 한 '미인도 사건' 사건이 1991년 일어났다. 작가가 위작이라고 한 작품을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했고 한국화랑협회도 진품으로 감정했다. 분노한 천경자는 국내 미술계에 절필을 선언했다. 얼마 후 장녀가 살고 있는 뉴욕으로 떠났고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하지 못하다 2015년 그곳에서 작고했다. 이 사건은 대중매체의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천경자가 이룬 미술적 성과는 이 한 작품의 진위 여부라는 자극적 화제에 묻히지 않는다.

이 논란으로 인해 천경자의 창작력이 위축되었다는 점은 한국 미술계의 큰 손실이 되었다.

천경자보다 2살 아래인 박경리는 1960년대 중반 동아일보에 장편소설 『파시』를 연재할 무렵 삽화를 그렸던 천경자와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박경리는 1988년 시 〈천경자를 노래함〉에서 천경자를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좀 고약한 예술가'라고 했다. 천경자를 아꼈던 혜곡(兮谷) 최순우(1916-1984)는 "작가가 체험한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슬픔과 황홀함을 모두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천경자를 설명했다.

“들어는 봤나, 주크박스 뮤지컬?”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아바, 퀸, 로드 스튜와트와 빌리 조엘, 펫 샵 보이스 그리고 비틀즈까지.

한 시대를 주름잡던 왕년의 인기 가수 이름을 단순히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요즘 세계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주크박스(Jukebox) 뮤지컬의 소재가 된 뮤지션들이다. 대중적인 상업극의 인기가 가져온 재미난 현상이다.

주크박스 뮤지컬이란 '도넛'이라 불리는 싱글 앨범이 가득 담긴 기계에 동전을 넣고 선곡을 하면 왕년의 히트곡을 들려주는 음악상자처럼 흘러간 예전의 인기 대중음악을 가져와 무대용 콘텐츠로 재가공한 뮤지컬들을 말한다. 물론 도넛이란 싱글 앨범의 생김새가 마치 설탕 바른 동그란 모양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먹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혹 서양의 언론지상에서는 어트리뷰트 쇼(A tribute show)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대중음악의 헌정 콘서트처럼 말 그대로 특정 뮤지션의 업적을 '기리는' 성격의 공연이 많아서 생긴 별칭이다. 주크박스 뮤지컬이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뿐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잠재적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물론 관객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도 용이하다는 것은 이 장르가 지닌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뮤지컬의 대중화를 가져오기 쉬운 특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주크박스 뮤지컬의 세계적 돌풍에는 '맘마 미아!'가 큰 몫을 했다. 지난 2008년에는 매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 등을 전면에 내세운 스크린용 영화 버전으로도 제작돼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던 이 주크박스 뮤지컬은 70~80년대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던 스웨덴 출신의 혼성 그룹 아바(ABBA)의 음악들로 만든 작품이다. 아그네사와 베니 앤더슨, 비요른 울바에스와 애니-프리다 등 멤버들의 이름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팝 그룹 아바는 서구 대중음악 역사상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클리프 리챠드와 더불어 가장 많은 챠트 정상곡을 배출했던 히트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들의 음악은 몇몇 선율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린 바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댄싱 퀸(Dancing Queen)'이나 '치키티타(Chiquitita)'는 물론 '위너 테익스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테이크어 챈스 언 미(Take a chance on me)', '쌩큐 포 더 뮤직(Thank you for the music)' 등 주옥같은 멜로디의 아바의 노래 24곡이 등장해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중장년 관객들의 추억을 절묘하게 건드리고 있는 것이 마케팅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특히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들은 가사의 변형 없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불려지며 절묘하게 이야기를 꿰맞추어 가는데, 바로 여성 극작가였던 캐더린 존슨이 아바의 대부분 노래가 가족이나 우정, 사랑 등 일상사의 감성들로 이뤄져 있는 것에 착안해 고안해낸 절묘한 이야기 뼈대 덕분이다. 결국 뮤지컬은 40대의 미혼모가 20살이 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일지 모를 세 명의 남자와 이리저리 얽히고설키는 해프닝으로 재연되게 됐는데, 물론 원작자의 의도는 아바의 음악을 추억하는 40대의 관객이 이들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10대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게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1999년 영국 런던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 처음 막을 올렸던 '맘마 미아!'는 이후 독일이나 스웨덴 등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이나 브로드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몰이를 크게 성공하며 글로벌한 흥행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물론 가장 근본적이자 원칙적인 흥행 비결은 잘 알려진 음악에 있었다. 다름 아닌 '아바'의 음악들 덕분에 가능했던 작품이며, 뮤지컬 제작 역시 '아바'의 남자 멤버들이었던 베니와 비요른이었기 때문에 실현가능했던 무대였다.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멜로디 탓에 극의 전개를 따라가기 힘들거나 대사를 알아듣지 못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이 뮤지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으로 통하게 됐다.

사실 '맘마 미아!'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감상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뮤지컬에서 아바의 노래들은 원래 알려진 의미와 전혀 다른 코믹하고 색다른 이중법적인 역할로 재해석되는데 진정한 묘미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인들의 사랑 다툼을 노래한 '더 네임 어브 더 게임(The name of the game)'은 극에선 아빠일지 모를 중년 남성에서 어린 소피가 묻는 질문으로 등장하며, '아이 두, 아이 두, 아이 두, 아이 두(I do, I do, I do, I do)'는 급작스런 결혼 제안에 소피의 엄마 도나가 그 자리에서 승낙하는 프로포즈 장면으로 활용된다. 익숙한 멜로디와 노래말에 덧붙여진 새로운 해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가 등장할 때마다 무릎을 치고 탄성을 지르게 하는 절묘함을 낳게 됐다.

하지만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맘마 미아!'는 주크박스 뮤지컬의 효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음악적 비중이 높은 뮤지컬 장르에 인기 있는 대중음악을 차용해 극적 구성을 시도하는 방법은 나름 긴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특히 웨스트엔드의 경우 이 같은 유행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시도되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번안돼 무대화가 된 적이 있는 뮤지컬 '금단의 별로의 귀환(Return to the Forbidden Planet)'은 초창기 주크박스 뮤지컬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1990년 런던에서 초연됐던 이 뮤지컬은 세익스피어의 미완성 희곡 '태풍'을 SF영화로 탈바꿈시켜 인기를 모았던 1956년작 B급 SF 영화 '금단의 별(Forbidden Planet)'을 무대용 뮤지컬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별난 원작 영화를 무대화한 탓에 진지하다기보다 재치 넘치고 유머러스한 표현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코믹 뮤지컬이 됐는데, 특히 흘러간 대중음악들을 소위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형식으로 재활용하는 실험성을 선보이며 대중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았다. 비치 보이스, 클리프 리처드, 척 베리, 프랭크 시내트라 등 50~60년대 인기가수의 히트곡에 노랫말을 개사하고, 그 사이사이에 세익스피어 스타일로 꾸민 걸출한 입담들을 삽입하는 형식적 도전을 덧붙인 것이다. '잇츠 어 맨스 월드(It's a man's world)', '영 원스(Young ones)', '온리 더 론리(Only the lonely)', '그레이트 볼스 어브 파이어(Great balls of fire)' 등은 올드 팝 팬이라면 절로 발 박자를 맞출 만한 이 뮤지컬의 대표적 뮤직 넘버들이다. 뮤지컬 '금단의 별로의 귀환'은 그 해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에서 '미스 사이공'이나 '아스펙스 어브 러브(Aspects of Love)' 등 쟁쟁한 경쟁작을 물리치고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단일 뮤지션의 음악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도 많다. 1991년 런던에서 제작돼 큰 인기를 모았던 뮤지컬 '모우라고 불린 다섯 사나이(Five Guys Named MOE)'는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 루이스 조단의 음악들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단순하지만 만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가 돋보였던 이 작품은 어느 날 라디오에서 튀어나온 다섯 명의 흑인 사나이들이 우유부단한 주인공과 함께 한바탕 난장 재즈 콘서트를 벌이는 형식을 보여준다. 극적인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면 앞줄 관객을 한 줄로 일으켜 세워 무대 위에 데리고 올라가 줄 맞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묘미인데, 흡사 흥겨운 대중음악 콘서트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1989년 제작된 뮤지컬 '버디(Buddy)'도 특정 뮤지션의 음악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버디 홀리는 영화 '라 밤바'에 나왔던 가수 리치 발렌스가 비행기 사고로 명을 달리했을 때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목숨을 잃었던 비운의 청춘 스타이다. 그의 대표적 히트곡인 '페기 수(Peggy Sue)'나 '메이비 베이비(Maybe Baby)'가 라이브 밴드의 생음악으로 무대에서 재연될 때면, 그를 기억하는 대부분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추억을 되새김하는 시간을 체험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근 20여년간 공연을 지속하고 있는 대형 주크박스 뮤지컬 작품이다.

2000년대에 들어 주크박스 뮤지컬은 폭발적인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다. 영국 록 그룹 퀸의 음악들로 만든 '위 윌 록 유', 빌리 조엘의 '무빙 아웃(Movin' Out)', 로드 스튜와트의 '투나잇츠 더 나잇(Tonight's the Night)', 존 레논의 '레논', 매드니스의 '아워 하우스(Our House)', 비치 보이스의 '굿 바이브레이션스(Good Vibrations)', 엘비스 프레슬리의 '올 슉 업', 포 시즌즈의 '저지 보이스(Jersey Boys)', 조니 캐쉬의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보니 엠의 '대디 쿨(Daddy Cool)', 밥 딜런의 '그들이 변해야할 시간들(The Times They Are A-Changin)' 그리고 패티 그리핀의 음악들로 꾸민 '천만마일(Ten Million Miles)', 캐롤 킹의 음악들로 만든 '뷰티풀(Beautiful - Carol King Story)', 티나 터너의 노래들이 나오는 '티나(Tina)', 호주산 영화가 원작인 '프리실라 - 사막의 여왕(Pricsilla - the Queen of the Desert)'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창작 뮤지컬계에서도 주크박스 뮤지컬의 도전이 늘고 있다. 1970~80년대 인기가요를 편집음반(Compilation) 형식으로 꾸민 '달고나'나 '젊음의 행진', '온 에어'도 그렇거니와 인기 그룹인 '동물원'의 음악들로 만든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하이틴 영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 콘텐츠를 7080 콘서트 형식으로 포장해 완성시킨 '진짜 진짜 좋아해', 역시 원작 영화를 대중음악으로 버무려 놓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서태지의 음악이 나오는 '페스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아직 아쉬운 점도 많다. 주크박스 뮤지컬의 생명력은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라이브 무대의 음악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 무대에서는 아직 음악이 극적 전개를 위한 소품쯤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해 주크박스 뮤지컬임에도 음악 듣는 재미가 외면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뮤지컬을 대중문화가 아닌 고급 예술로 여기는 풍토도 대중적인 한국형 주크박스 뮤지컬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곤 한다. 껍질이 깨지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없다. 한국형 주크박스 뮤지컬의 당돌한 도전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좋은 작품을 만나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박수도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환호해 보고 싶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커뮤니티 아트 10

아마추어 예술의 재발견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보통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술과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소위 '아마추어(amateur)'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추어 예술이 전문 예술가의 작품에 비해 그 질(quality)이 떨어진다고 무시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다양성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아마추어 예술[1]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예술이 '결과'로서 물체(object)보다 '과정'으로서 경험(experie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예술이 문화와 관광을 앞세운 체험 서비스 경제에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는 아마추어 예술가에 대한 이러한 낙인효과와 함께, 아마추어 예술이 사람들의 인간성 실현이라는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지역사회 활성화나 사회치유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전문예술과 아마추어 예술 사이의 긴장관계와 오늘날 문화경제 시대에 아마추어 예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예술에 대한 후원자로서 아마추어

> "아마추어 관행은 종종 여가 활동, 사적인 서클에 국한된 취미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또한 전문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만 간주됩니다. 아마추어는 아직 음악 예술을 마스터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 활동은 청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

아마추어리는 말은 17-8세기 프랑스 예술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아마추어란 고대 프랑스어 '사랑(amor)'에서 유래한 말로써, 어떤 일을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따라서 원래부터 아마추어리는 용어에는 전문성 부족이나 결여와 같은 의미는 없었다.

17-8세기 프랑스 예술계에서는 많은 전문 예술가들이 부유한 예술애호가들의 후원 속에서 생계와 작품 활동을 유지하였다. 부유한 예술애호가들은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거나 직접 후원하는 후원자(Patron)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작품 수집을 위해 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갖추고 있었을 뿐

1) 아마추어 예술은 자발적 예술, 비공식 예술, 시민예술, 생활예술 등으로도 사용된다.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영국), voluntary는 예술이 단순히 사적인 취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공적 존재(시민)로 만드는 자원임을 강조한다.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 미국)은 공식예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이 주로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열린다는 의미로, 시민예술은 전문예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생활예술은 순수예술에 반하는 개념으로 각각 아마추어 예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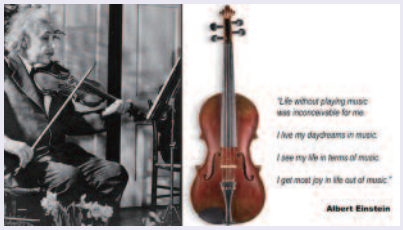
2) 이로부터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evaluation)의 기준이 예술 자체보다는 사회적 효과에 더 치중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3) Amateur Practices of Popular Music in France - A Study by FEDELIMA, 2020.4.17., http://www.live-dma.eu/amateur-practices-of-popular-music-in-france-a-study-by-fedelima/ (2020.12.10.검색)

그림1〉 렘브란트, 얀 식스의 초상화(Rembrandt, Portrait of Jan Six), 1647 Etching, drypoint and burin on paper, state IV (4), 246x191mm Amsterdam, The Rembrandt House Museum.
램브란트는 자신의 후원자인 얀 식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출처▶https://www.rembrandthuis.nl/wp-content/uploads/2019/04/jan-six-1-809x1024.jpg (2020.12.10.검색)

라부와지에
(Antoine Laurent de Lavoisier; 1743-1794)
세금징수관

출처▶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5/09/%EB%9D%BC%EB%B6%801.jpg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1955) 스위스 특허청 심사관
출처▶http://www.orchestrastory.com/wp-content/uploads/%EC%95%84%EC%9D%B8%EC%8A%88%ED%83%80%EC%9D%B8-%EB%B0%94%EC%9D%B4%EC%98%AC%EB%A6%B0.jpg

벨(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
음성학자

출처▶http://img.nate.com/dicimg/100art_new/a/at/atelecm018p1.jpg

그림2〉 전문가를 능가하는 아마추어 과학자
과학기술 연구로만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근대 과학혁명 초기 대다수의 과학자는 부자 혹은 귀족 출신이었다.

전문 예술가	아마추어 예술가
소득창출	비용지출
정규 교육과정	학습과 강습
전적 몰입	진지하지 않음
직업	여가 취미
전문가	비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지식	취향에 따라
예술원형 추구	모방
진지한 창조	여가와 오락

그림3〉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예술가 비교_허치슨과 페이스트 (Hutchison and Feist, 1991)
전문 예술가아마추어 예술가소득창출비용지출정규 교육과정학습과 강습전적 몰입진지하지 않음직업여가 취미전문가비전문가풍부한 경험과 지식취향에 따라 예술원형 추구모방진지한 창조여가와 오락
허치슨과 페이스트는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8가지로 구별했다. 이 구분은 아마추어 예술가가 2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하지만 스테빈스, 에드워드 사이드 등에 의하면 아마추어 예술가는 진지한 여가로서 작업을 하며,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도 한다고 본다.
출처▶김보름, 천혜정, 「예술 장에서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의 상징투쟁」, 『문화와 사회』, Vol. 28 No 1, 2020, 245-246쪽에서 구성

그림4〉 딜레땅트 연극: 배우분장실을 엿보기(Dilettanti-theatricals: or a peep at the Green Room). 붐비는 장면, 픽닉 소사이어티의 아마추어들이 옷을 입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5735 x 3487 px | 48.6 x 29.5cm | 19.1 x 11.6 인치 | 300dpi (Source: George)

1801년 영국에서 창립된 아마추어 연극 〈Pic Nic Society〉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영국으로 피신한 200여명의 프랑스 귀족 자제들의 실내 취미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아마추어 연극이지만 인기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전문극단(Richard Brinsley Sheridan, the owner of the Drury Lane theatre)의 언론플레이와 정치력 동원에 의해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이 취미모임이 나중에 피크닉(picnic)의 유래가 되었다.
출처▶https://www.historytoday.com/archive/historians-cookbook/history-picnic

아니라 심지어 직접 창작 작업을 하는 등 실제 예술가에 필적하는 아마추어 예술을 탄생시켰다. (그림1)

공자가 말하길,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고, 행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이 역시 즐거워서 하는 일은 당해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 예술가의 행위는 행함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동기가 강하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쓸 일이 없었던 아마추어의 입장은 오히려 전문 예술가 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예술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았다. (그림2)

그렇다면 어째서 아마추어에게 '2류'(secondary) 라는 관념이 형성되었을까? (그림3)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역전 : 2류로서 아마추어

우선, 그것은 분업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른바 근대지식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다. 근대 이전까지의 지식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경험적 지식이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분업은 전인적 노동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기능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였으며, 이는 다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같은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근대 계몽주의와 합리적 이성(지식)의 발전은 공장과 관료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급격한 산업화는 공장제 생산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체계를 요청하였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도시는 도시의 관리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는 행정가와 기술자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자본과 권력을 재편하였다. 기계생산은 육체노동과 상대할 바 없는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계급을 형성했다.

이제 교육은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비전문가, 아마추어들에게 전달하는 도시락 배달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전문가 중심적인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전문 예술가들은 창작과 공급을 전담했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전문예술가들을 모방하는 '따라쟁이'로, 보통사람들은 전문예술가들의 작품을 구경하는 관람객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

한편, 예술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순수예술에 대한 추종(정책)은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펼치는 창조성을 폄하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생각은 18세기 순수예술의 등장에서 완성된다. 즉 고대부터 중세까지만 해도 생활을 위한 기술에 포함되었던 예술이, 근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생활 기술과 분리되면서, 보통사람들의 생활기술 보다 특별한 정신 활동으로서 예술만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예술은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활동이 되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전유하는 전문적인 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예술은 미술관이나 예술회관에 전시와 공연의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미술관이나 예술회관에 전시 공연된 예술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술로 승인되었다.

문제는 순수예술의 발명으로 인해 전문 예술가가 새롭게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존재해왔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술, 그것도 우리가 삶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분명한 예술(자원)을 제거해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그림 4, 5)

아마추어 예술의 재발견 : 진지한 여가활동

오늘날 문화경제[4]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초국가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와 관광 서비스 시대 도시의 경쟁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즉 유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존재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경험을 제공할 문화유산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 의해 유지·보존된다. 왜냐하면 전문 예술가들은 생계의 어려움이나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미학적 신념 때문에 예를 들어 '300년이 지난 전통문화'를 지켜갈 수 없거니와 '수백 명이 출연해야 하는 작품'을 제작할 여유가 없다.

즉, 오직 아마추어 예술이야말로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 보존, 재창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예컨대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어떤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사랑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문화적 유산을

4) 문화경제란 제조 산업이 쇠퇴하면서 물질적인 재화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 같은 비물질적 재화, 즉 공연이나 관광, 도시 경관과 같이 체험서비스를 위한 문화가 경제재로 된 체제를 말한다.

보존하는 것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전문예술가들이 보상과 처벌이라는 금지로부터 안주하는 것을 벗어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적 성취를 가져올 수 있고 전문가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단지 가벼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술 혹은 문화 활동을 선택하지만 않는다. 그들은 보다 삶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사고와 표현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기 위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도 한다.[5] (그림6, 7)

모든 인간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다. 난민과 같은 무대에서 훈련되지 않는 신체의 미학은 살아있는 현실의 진정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추어 예술가는 자신의 삶에 있어 전문가다.

아마추어리즘과 커뮤니티 아트

산업경제에서 아마추어는 단순한 취미생활자나 여가소비자의 정체성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아마추어는 이를 거부한다. 커뮤니티 아트는 참여를 통해 현실을 망각하고 은폐하는 참여예술을 거부한다.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은 전문예술과의 경계를, 유급과 무급의 경계를, 정식공부와 비공식 학습의 경계를 뛰어 넘는다. 이런 점에서 아마추어 예술과 커뮤니티 아트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스테빈스의 아마추어 예술(진지한 여가)은 전문가가 있는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아마추어가 단지 취미나 모방과 같은 오락과 서투른 실천만이 아니라는 주장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오직 전문가 '따라 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커뮤니티 아트가 가진 보통사람의 저자성 및 창의성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은 전문 예술과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전문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연출, 즉 동일한 목적과 과정, 방법,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공동체의 의도를 중심으로 놓는 커뮤니티 아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Robert Stebbins,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2007년) 『진지한 여가』, 최석호,이미경,이용재 역, 여가경영, 2012.

그림5〉 James Gillray, Party pooper : 'Blowing up the Pic-Nic 's, or, Harlequin Quixote Attacking the Puppets', 1802.4.2. Alamy Sheridan(전문극장 대표)이 아마추어 연극 〈Pic Nic Society〉 에 대해 공격한 것을 두고 조롱하는 그림

출처▶https://www.historytoday.com/sites/default/files/pic-nic-3.jpg

그림6〉 진지한 여가는 아마추어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을 위해 몰두하면서 특수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얻는 여가활동이다. 스테빈스는 놀이나 오락과 같은 가벼운 여가가 아니라 진지한 여가만이 아마추어 예술이라고 정의했다.
https://sportnest.tistory.com/3036 (재인용)
출처▶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해리 리버만(Harry Lieberman). 사진 출처 구글)

그림7〉 탈춤동호회 '청노새' 회원들
이 단체 회원들은 전통문화와 예술에 관한 오랜 활동과 경험을 통해 '프로암'(pro-amateur)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20 |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코로나시대의 지휘 I

왜 그랬을까?
10월 11일 부산에서의 '운수좋은 날'의 여운이 너무 오랜 잔재를 남겼던 것일까?

10월 6일 대구시립합창단으로 오고나서는 김해시립과는 다르게 거의 매일 출근하다보니 피곤이 절대적으로 쌓였기 때문일까?

10월 15일, 근 1년만에 마술피리로 다시 찾은 롯데콘서트 무대는 너무도 낯설기만 하였다.

11번째 마술피리 공연…
10년째 만나는 오케스트라…
늘 호흡을 맞추어오던 가수들…
6년째 만나는 오페라단…

어느 하나도 익숙치 않은게 없고, 편안하지 못할게 없는 성공이 보장된 연주였는데…

연주가 시작되자 나안의 또 다른 Persona는 나에게 악보 넘기는것 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나로 하여금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아, 등골이 오싹한 순간들이 마치 영원히 멈추어 서 있는것 같았다.

1막이 끝날때까지 그 Persona는 날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인증' 이라는 것일까?

내 귀에는 많은것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난 거의 아무것도 못 듣고 있었고, 내 눈에는 많은 것이 비춰지고 있었지만 난 거의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고…큰 실수의 기억을 동반하지 않은 채 어느새 1막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나는 발견하고 말았다.

그런데 2막이 시작되자 날 꽉 껴안고 있던 그 페르소나 의 압력이 느슨해지며 그제서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그제서야 관객들이 내 뒤가 아닌, 옆에서, 앞에서 하얀 마스크를 쓴 채 어둡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아채었던 것이다.

아. 바로 이것이었던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던 그 보이지 않던 힘의 실체가?
그렇다면 난 어느새 Sarastro가 되어 Königin der Nacht 와 싸워야 했던 것일까?

그런데 이번에 만난 Königin der Nacht 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177cm의 키에, 좀 과장하자면 거의 lirico spinto성의 공격적인 소리를 가진, 또한 표정에서 조차도 웃음기가 거의 없는, 바야흐로 '밤의 여왕 그 자체'였다.

아무튼 전면과 측면에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듯한 마스크 너머의 시선들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그 유명한 아리아를 뿜어대는 밤의 여왕의 소리에 끼인 나는, 묘한 기운에 포위 당한채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더구나 현파트 연주자들도 얼굴을 반만 내놓은 채 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바로 앞에서 망연자실히 목도한 채…

이렇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연주의 순간들이 정면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들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코로나시대의 지휘 II

밤의 여왕과 마스크 관객들과의 사이에 낀 채 2시간 가량 허우적대었던 10월 15일의 마술피리는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도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 버렸었다.

그런데 11월 11일.
근 한달만에 또 다시 찾은 바로 그 롯데콘서트홀.

이번에는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와 Tosca 라는, 전혀 결이 다른 두 오페라를 반반씩 해야하는, 더욱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공연이었다.

아. 그런데 리허설 중, 뒤를 돌아보니 가수들은 내 등 뒤에서 더욱 멀어져만 갔고, 그들과 나를 이어줄 모니터는 결국 오지 않고 말았다.

게다가 '인터스텔라'에서의 6차원 같은 곳에 갇힌 경험을 불과 한 달전에 바로 이곳에서 한 지라, 리허설 전부터 나의 내부 이곳 저곳에는 불안함들이 검은 마스크를 낀 채 꾸역꾸역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얀 마스크를 쓴 관객들이 어두운 시선으로 앞과 옆에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지…그러면 난 또 악보조차 넘기기 힘들거야" 라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다 어느새 리허설이 끝났음을 뒤늦게서야 인지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털썩 앉아 흐르는 땀을 닦고 있자니…
저 거울너머에서 마스크를 끼지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한 남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게 아닌가?!

아, 그 남자는 바로 나의 persona 중 하나, 바로 그였고, 오늘은 Trauma 라는 이름으로 저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아, 영화 '뷰티풀마인드'가 생각났다.

2.

'존 내쉬' 박사를 평생 따라다니던, 늙지도 지치지도 아니하던 그 CIA 요원과 대학친구와 그 조카는 끝없이 박사에게 소련의 핵무기를 없앨 비법을 고안하라고 다그치고 다그쳤지. 박사는 그렇게 피폐해져갔고, 당연히 교수직도 잃고 정상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었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폐함의 아누스적인 댓가로 그는 '리먼가설'에 도전했고, '게임이론'을 창시하여 결국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게임이론' 은 오늘날 우리네 인간사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3.

성남에 있는 필자의 집에서는 거의 매일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이 120층짜리 건물은 흐린날이면 더욱 그 기괴함과 음산함을 더하더니만 그렇다면 소문대로 정말 '큰 형제들' 이 지은 건물일까?

아니면 혹시 2019년 말에 태어난 '왕관'과 관계가 있는 모종의 비밀장소는 아닐까?

어느 음모론적 찌라시에서 읽은대로 이 건물이 바벨탑이어서, 피라미드여서 그 어두운 기가 사람의 에너지를 이런식으로 빨아먹는것이 아닐까?

2시간 짜리 연주를 앞둔 나의 머리속은 2시간 가량, 이렇듯 한계를 모르는 별의별 공상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었다.

4.

저녁을 먹지 않은채로 사탕 3개만 연거푸 빨아 대다가 그렇게 무대로 나아갔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대충 짐작으로도 마술피리 때 보다 더 많은 마스크가 내 눈에 순식간에 계산되어지면서 마스크를 쓴 관중을 올 들어 4번째 대하는 나의 시선이 갑자기 훨씬 차분해지고 부드러워 지는게 아닌가!

그리고 내 안의 그 녀석이 또다시 고개를 쳐 드는것 같더니만, 이내 그간 숨 죽이고 있던 다른 페르소나 들이 앞 다투어 치고 올라 오는것이 마구 느껴지는 것이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함 쪽으로 몰아넣던 그 녀석도 아주 가끔씩 고개를 들이밀기도 했지만 적군의 강력한 기운을 느끼는지 금새 깊은 벙커속으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다.

아, 이 해방감이란…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완전 내 세상이었다.
하얀 마스크를 쓴 관중들의 맑은 두 눈에 비치는 민족감과 경탄, 그리고 한달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내눈에 들어왔고, 악보는 평소보다 100배 크기로 확대복사가 되어져 있었다.

심지어 난, 문어의 8개 팔을 가진 지휘자가 되어 앞을, 옆을 동시에 찔러가며, 가끔씩 가수들의 입에서 달아나려는 가사까지 내 뒤통수를 통해서 불러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더욱 2부 토스카 때가 되자, 나의 뒤에서 피 튀기고 있는 카바라도시와 토스카와 스카르피아의 대결이, 지휘하고 있는 내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넷플릭스 영화처럼 상연되는게 아닌가?.!.

그것도 입체와 시간을 넘어선 거의 5-6차원적인 감각으로 아주 아주 느리고, 평면적이면서도 거의 나노급의 세밀함으로 각 순간의 시·공간 내부의 한 장면, 한 장면이 현미경을 통해 고스란히 보이고, 전달되고, 느껴졌다.

아, 행복하여라!. 감사하여라!
이 순간 만큼은 '지네딘 지단'이나 '리오넬 메시'가 된것처럼 360도로 이 시·공간 내부의 모든것이 다 보여지고 느껴졌던 것이다.

5.

그렇다. 내안에는 너무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뒤엉켜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때는 분노하고, 어떤때는 사랑하고, 어떤때는 두려워하고, 어떤때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참으로 다양한 Persona가 그때 그때마다 밖으로 튀쳐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수 많은 나의 페르소나 중,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녀석들을 무저갱속에 가두어 두면서, 반대급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친구들을 늘 전면에 내세우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질문이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50대 중반을 지나는 나의 머리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튼… 롯데콘서트 홀에서 맞은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말로 형언할 수없이 기쁘고 아름다운 순수예술적 쾌락의 파라다이스에 혀 끝을 대어본 그 짜릿함에 대한 여운과 진한 그리움은 상당히 오랜기간 내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10

또 다른 세 여자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미술에서 접하는 유명한 여인상이 있다. 삼미신(三美神)이다. 여인은 미를 대변하는 형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인간 형상을 통해 대신 표현한 것이다. 미(美)란 감각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깊이와 품위가 함께 구비되어야만 진정한 미라고 할 수 있다. 깊이와 품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덕성과 지성이다. 감각적인 매력, 가장 좋음, 분별력 등이 조화롭게 섞여 우아한 풍미로 등장해야만 '진정한 미'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술은 이것을 '완벽한 비례' 혹은 '올바른 비례'를 통해 구현해 왔다. 이런 고전미는 오래 동안 여성 형상을 빌어 미의 전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성과 미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여성을 이해하고서, 삼미신을 그린 작가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작가로서 이름을 남긴 여성작가들은 많지 않다. 여성들의 주요 역할이 아름다움을 매개하는 매개체에 머물지 않고 작가로서의 활동과 업적 그리고 고유한 삶의 질곡을 보다 풍성하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일까. 1980년대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여성의 지위를 반문하며 오귀스트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누드 작품 〈오달리스크(The Grand Odalisque)〉 모델에 고릴라 가면을 씌운다. 게릴라 걸스는 전시에 초대되는 여성미술가들의 비율이 얼만큼인지 드러낸 포스터를 제작하여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게릴라 걸스와 같은 활동에 힘입어 오늘날 미술계는 여성이 갖는 특성과 이들의 업적에 대해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게릴라 걸스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성들의 삶과 활동 그리고 업적이 구체화되면서 서양의 삼미신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간 세 여자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시대 여성 작가의 모습을 음미해보자.

1.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 드 리베라(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는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불린다. 본인은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녀가 묘사하는 풍경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가가 자신의 명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초현실주의라 할만하다. 프리다 칼로는 작품 143점 중 55점이 자화상으로 자신을 가장 많이 그린 작가로도 유명하다. 작가를 따라다니는 숫자는 자화상의 숫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생애 35번의 수술, 3차례의 유산 등 삶과 죽음 사이의 머나먼 여정을 왕래하며 흔치 않는 삶의 질곡을 통과한 작가이기도 하다. 21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결혼과 2차례 이혼과 재결합 등 숫자만 따라가도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 만큼이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 자화상 한 점을 보며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의 상상력을 따라가 보자.

프리다 칼로, 뿌리, 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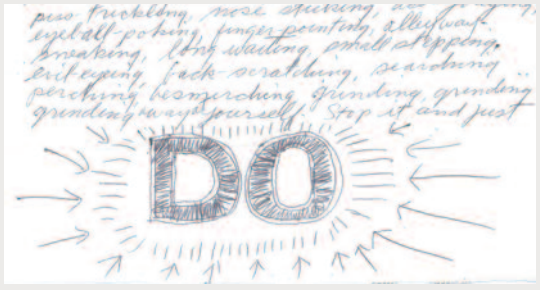
프리다 칼로 자화상은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고 자신의 몸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여겨, 다른 형상을 신체에 담아 놓기도 한다. 작품에는 식물 동물 등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프리다 칼로는 새를 특히 중요하게 다룬다. 교통사고 그리고 남편 리베라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언급한 프리다 칼로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자신을 등장시켜 대지와 우주의 생명 연대를 강조한다. 화면을 가득 메운 식물과 원숭이, 고양이,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상반신을 감고 있는 장식물은 자라나는 식물처럼 표현되어 있다. 곧 그녀의 몸을 감싸 버리고 말 것 같은 덩굴은 가시도 함께 자라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 다른 전신 자아상의 경우를 보면(〈뿌리, 1943〉), 몸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녀와 대지를 덮으면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줄기와 이파리는 관객을 판타지 공간으로 이끈다. 원숭이와 함께 등장한 초상화의 경우, 배경의 식물과 목을 장식한 덩굴이 상호 반향하도록 하면서 거대한 식물의 숨결 속에 자신을 두고 있다. 머리의 장식물은 덩굴이미지로 꼬여서 대칭의 방식으로 나비가 앉아 있다. 나비는 배경에서 날고 있는 잠자리와 상응하고 프리다 칼로의 몸은 자연

속의 한 마디가 되어 이중 삼중의 우주적인 연결이 강조된다. 무생물과 생물의 대비처럼 장식의 나비와 실제 잠자리라 할지라도 상호 우주적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없다. 원숭이 고양이 그리고 목의 장식물 새, 이 삼각의 동물 들이 프리다 칼로를 에워싸고 한 가운데에서 놓인 프리다 칼로는 우주의 숲에 돋아난 한그루 식물과 같다. 대지에서 피어나 거대한 운행에 참여하는 이런 생명체는 프리다 칼로가 뿌리내리고 있는 멕시칸의 역사와 맞물린다. 식물이미지는 혈연의 연대로서 멕시칸의 역사와 전통의 계통수(系統樹)를 빗댄 것이 아닐까. 혈관, 핏줄, 식물줄기 등은 동종의 뿌리로부터 상호 공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프리다 칼로는 고통의 극한에 나무로 변한 다프네처럼 멕시칸 신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

2. 에바 헤세

천재 화가 에바 헤세는 34살에 생을 마감한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던 헤세에게 친구 솔 르윗은 "깊은 생각에 대한 근심은 버려요, 당신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생각하지 않고, 비워버리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당신은 할 수(DO) 있을 꺼예요."라는 말을 담아 그림문자를 만들어 보낸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그림시(詩)처럼 솔 르윗은 필체 자체에 단어의 의미를 담아 강력한 우정을 실은 것이다.
에바 헤세는 나치를 피해 유럽 몇 나라를 거쳐 뉴욕으로 오게 된 유태인이다. 인생의 시작부터 근본적인 존재의 위기감과 불안이 따라다닌 인물인 것이다. 어머니가 자살하고, 첫눈에 반한 남편과는 4년 만에 이혼한다. 그녀의 불운하고 불안한 전기傳記)가 말해주듯 그녀가 다루는 재료는 라텍스, 고무, 풍선, 밧줄 등 대량생산되는 산업재료들이면서 쉽게 변하는 것들이다. 재료로 인해 결국 작품이 망가지고 사라진다 해도 에바 헤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 생각에 예술도, 인생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녀 차별이 심했던 뉴욕 화단에서 에바 헤세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석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주역이 된다. 여기서 보는 두 점의 작품은 헤세가 유명해지기 이전의 작품이다. 휘몰아치는 선으로 두 명의 인물을 표현한 작품은 이후 에바 헤세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상들이다. 우연적인 형태의 동그라미나 밧줄 형태 혹은 실제 밧줄의 사용 등등 우연과 즉흥의 모티프들이 초창기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상화의 경우에도 덧없음이나 사소함과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데,

에바 헤세, 반복 19 Ⅲ, 1968



에바 헤세에게 보낸 친구 솔 르윗의 조언

에바 헤세, 1960년대 〈무제〉 작품들

초상화 속 인물은 세상에 대해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활기가 없다.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아무런 특징이 없고, 세상의 가장자리에 겨우 겨우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 같기도 하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와 겪은 불화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불안이 에바의 영혼을 잠식한 것이다. 매가리 없는 포즈와 색면으로 처리된 얼굴이나 머리카락, 보일 것 같지 않은 눈의 표현에서 헤세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죽기 수년 전에 제작된 많은 대표작들에 비해 초기 작품에서 에바 헤세는 아무런 방어 없이 자신의 전기적인 사실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수많은 자신의 고백을 거치면서 그리고 솔 르윗과 같은 친구의 우정을 나누면서 그녀는 전기적인 기록의 구체성을 추상화시켜 미니멀리즘 이후 설치나 비구상의 새로운 현대미술의 장을 개척한 것이다.

3.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아르테미지아 젠틸레스키는 최근에 알려진 화가이다. 젠틸레스키의 존재 자체를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으니 최근 수 십년 내 발굴된 화가라 할 수 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묘사력이나 표현력, 화면의 구도 등으로 보아 젠틸레스키는 바로크 풍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역동적인 인물의 구도와 빛의 흐름, 빛의 극명한 대비, 단축법을 구사하는 뛰어난 솜씨, 화면 전체에 감도는 동세(動勢) 등 그녀는 자신이 다루는 매체에 통달한 듯하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 1593~1620)는 카라바지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화가이다. 젠틸레스키의 아버지는 당대 누구도 자신의 딸을 따를 자가 없다고 했다 한다. 당대에 젠틸레스키는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것이다. 이런 작가를 어떻게 해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인지, 여성작가가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누드 모델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게릴라 걸즈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젠틸레스키가 들었더라면 후배들을 이끌고 위로는 물론 용기를 불어 넣어 강인한 영혼으로 이끌어주었을 것 같다.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에서는 그녀의 자신감과 전문가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진다. 그녀가 그린 '유디트'도 매우 명확한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와 비교해보면 그 관점이 당장에 드러난다. 젠틸레스키의 것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의 결기는 팜므 파탈(femme fatal) 시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의 표정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정이다. 클림트의 유디트는 화면 전면을 차지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만 그 특성은 성적(性的) 불가사이로서의 여성성이 강조되고 홀로페르네스 죽음의 순간은 다만 평온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젠틸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단죄하는 자로서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매우 뚜렷하고, 목이 뒤틀려 칼을 받는 홀로페르네스는 처참할 뿐이다.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드러내는 차이도 극명하지만 젠틸레스키 자체의 독자성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젠틸레스키

클림트

소박한 싯구가 무대에서 노래가 되다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가난했지만 멋쟁이 시인이었던 남자가 우연히 기생을 만나게 되고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같은 고향 출신인 데다가 하얗고 청초한 그녀의 이미지에 첫 눈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야(子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늘부터 당신이 나의 부인이니 우린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엉뚱하지만 순수한 모습에 여인은 마음을 열게 되고, 두 사람은 가난한 시인과 기녀의 동거라는 별스러운 사랑을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했나 보다. 남자의 고향집 엄한 아버지는 두 사람의 인연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고향인 함경북도 정주로 끌고 와 억지 혼사를 올리게 한다. 고향집에서 야밤도주를 반복하던 남자는 만주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여인에게 중국에서 만나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과 북으로 갈려진 민족상잔의 비극에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남쪽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은 사업가이자 자산가로 성장한다. 당대 최고의 요정으로 손꼽혔던 대원각을 만들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단 탓이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연인이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시작(詩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뒷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말년에 자신의 재산을 조계종의 법정스님에게 기탁해 사찰을 짓게 한다. 그곳이 바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다. 한때, 종교에 귀의한 재산이 아깝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의 속된 질문에 여인은 "1000억 재산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하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또 슬픈 사연이 뮤지컬로 환생했다. 시집 제목으로도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다. 놀랍게도 실화다. 바로 시인 백석과 그를 사랑했던 기생 김영한 혹은 백석이 지어준 이름인 자야의 사연이다.

뮤지컬에도 유행이 있다. 근래 들어 나타나는 우리나라 공연가의 가장 큰 유행이라면 아마도 긴 제목일 것 같다.

'빈센트 반 고흐'에서 '여신님이 보고 계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 이르기까지 홍보용 포스터에는 글자들이 가득하다. 수입 뮤지컬들 중에서도 '노트르담 드 파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젠틀맨스 가이드 투 러브 앤 머더' 같은 긴 제목들이 눈에 띈다. 한때 대학로 공연가에서 막을 올린 소극장 뮤지컬 중에는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라는 원태연 시인의 긴 싯구를 가져다 썼던 경우도 있다.

제목만 긴 게 아니다. 인상적인 대사를 담은 캘리그래피를 통해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도 흔해졌다. '언젠가 알 게다. 모든 것은 시간이 알게 할 게다', '살다보면 살아진다'와 같은 '서편제'의 경우나 '처음으로 나의 모든 걸 걸겠어, 프란체스카, 떠나자!'같은 문구로 로비를 가득 채웠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대표적이다. 공연 전후에 서성거리며 감상을 곱씹어보기 좋게 만드는 흥미로운 배려들이다.

요즘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바로 그런 매력의 작품이다. 백석의 시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무대용 콘탠츠로 환생시켰다. 음악에 맞춰 "눈은 푹푹 나리고, 나의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는 시구가 낭송되어지면, 관객들은 마치 시집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낭만적인 감상에 빠져들기 일쑤다. 백석은 윤동주가 사랑했던 시인이라는 설명도 늘 함께 한다. 조선일보에서의 기자 경험도 있고, 교단에 서기도 했다. 흩날리듯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의 흑백 사진은 요즘 감각으로 봐도 세련된 이미지가 그야말로 철철 넘친다. 섬세한 시구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깨끗한 그의 심성이 간접적이지만 어렴풋이 느껴진다. 현란한 이미지들과 가상현실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소극장으로 꾸며진 소박한 사랑 이야기의 이 뮤지컬이 왜 그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백석의 시집을 읽다보면 향토색 짙은 단어들에 정감도 느끼게 된다. '깽제미'나 '따디기', '마가리'같은 표현들이다. 백석의 시는 주로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자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낭만주의적 경향을 보여줬다. 전통이나 민속, 지역신, 민간신앙 등을 소재로 보통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이나 철학의 단면을 보여줬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북쪽 방언(혹은 토착어)을 사용해 정감어린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데, 뮤지컬의 제목으로 쓰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나 시집 '사슴'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의 시를 읽다보면 '눈이 푹푹 나리는 날… 마가리에 살자'라는 왠지 정겨워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 그 마가리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마가리는 오두막의 북쪽 지방 사투리이다. 시집을 통해 무대를 경험하면 얻게 되는 고귀한 선물이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오가며 작가, 각색가, 연출가로 활약하는 오세혁이 이 작품의 산파다. 그는 원래 백석 시인 좋아해 가방 속에 시집 넣어 다녔다는데, 몇해전 백석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 뮤지컬의 연출을 결심하게 됐다는 후문도 있다. 음악은 요즘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박해림과 채한울이 맡았다. 피아노 한 대로 수수하고 담담하지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수수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고귀한 체험을 선사한다.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담백하지만 서글픈 운명적

연인의 사랑 이야기와 잘 어우러져 소극장 뮤지컬 특유의 뒷맛이 길게 남긴다. 무대를 통한 '힐링'이란 바로 이런 작품을 두고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이다. 싯구처럼 정말 '응앙응앙'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매력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막을 올린 앙코르 무대에서는 백석 역으로 감성 가득한 무대를 잘 표현하는 강필석이 미남 배우 오종혁, 분위기 있는 송원근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자야로는 내 마음의 풍금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였던 뮤지컬 배우 정운선이 전성민, 이하나와 함께 등장하고, 1인 다역의 사내로는 유석현과 장민수가 무대에 나온다. 단 세 명만 출연하는 단출한 무대이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의 매력이 찬바람 부는 요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독이며 녹여준다.

소극장 뮤지컬 특유의 작지만 아담한 무대속 이미지들은 이 뮤지컬 특유의 정서와 재미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여러 뮤지컬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어 냈던 무대 디자이너 서숙진의 솜씨다. 볼거리 위주의 대형 뮤지컬처럼 무대에 변화가 많거나 쉬지 않고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순수한 사연 속 이야기에 걸맞게 마치 관객들에게 '힐링'을 주려는 듯한 대나무 숲의 이미지는 강렬한 뒷맛을 남긴다. 공연을 관람하기전 만한 사석에서 하얀 나무들이 가득한 무대의 전반적인 비주얼은 실제하는 구체적인 장소의 무대적 재현이라기보다 백석과 자야의 마음속에 살았음직한 연인들의 마음속 정원을 형상화했다는 귀띔도 들려줬다. 무대 한 가운데에는 너른 평상이 있는데, 때로는 백석과 자야가 처음 만난 기방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함께 기거했던 자야의 단칸방으로 변하기도 하며, 극의 마지막 종반부에는 백석이 늘 자야를 데리고 오고 싶어했던 바닷가 어느 백사장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니멀리즘적인 재미도 마음에 사무치거니와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이야기의 색채가 뒤바뀌는 극 전개는 단출한 소극장 무대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이야기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독특한 매력을 십분 발산한다.

가난한 시인과 마음 고운 기생의 사랑이야기는 가슴 아프게도 슬픈 결말을 맞는다. 실제로 백석은 1996년 북한의 한 집단농장에서 명을 달리했고, 자야는 1999년 남한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오늘밤은 눈이 푹푹 나린다'로 시작하는 백석의 시 속 표현들처럼, 극의 마지막 무대위 대나무 숲에는 함박눈이 내린다. 소품으로 만든 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 숲이 온통 하얗게 비추일 정도로 환한 조명을 밝혀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해낸다. 극을 따라, 또 실제 연인들의 사연을 따라 이야기를 즐기다보면 어찌나 맑고 아름다운지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화려한 볼거리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극적 구성에 어울리는 무대의 시각적 효과가 얼마나 감동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실감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뮤지컬 무대를 통해 애틋한 사연으로 되살아나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 셈이다. 정말 뮤지컬을 보고 나면 길상사를 한번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가 인상적으로 무대에서 전개된다.

공연장 로비 한 켠에서는 백석의 시집도 판다. 관객들 중에서는 서재의 먼지 덮힌 책장을 뒤져 백석의 시집을 다시 읽고 싶다는 충동도 느낄 만하다. 학창시절 즐겨 봤던 활자가 무대에서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연기가 되어 다시 펼쳐지는 감동은 꽤나 쏠쏠한 재미를 완성해낸다. 코로나 19로 뒤숭숭한 연말이지만, 마음 차분해지는 작품과의 만남은 그나마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되어준다. 이마저 없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했을까. 좋은 작품을 선물해준 제작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연가이드

1·2 2021

01.16.(토)	11:00 14:00 16:00	[대관]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시즌2>	소공연장	극단 예일
01.17.(일)	11:00 14:00 16:00				
01.26.(화)	15:00	[대관]	장원우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소공연장	개인
01.29.(금)	20:00	[교향]	제213회 마스터피스 시리즈 1	대공연장	시립예술단
02.19.(금)	미정	[교향]	기획공연	대공연장	시립예술단
02.19.(금)	미정	[기획]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소공연장	예술사업과
02.20.(토)	미정	[기획]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소공연장	예술사업과
02.21.(일)	미정	[기획]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소공연장	예술사업과
02.21.(일)	19:30	[대관]	SMI청소년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SMI청소년오케스트라
02.23.(화)	19:30	[합창]	기획연주회 가곡의 밤_한국&독일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02.26.(금)	미정	[무용]	기획공연「新비나리」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 공연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가이드

2020. 12. 1. ~ 1. 29.
(60일간)

야외설치조형전

장소 야외광장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일원에 조형구조물과 조명장식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2021. 1. 20. ~ 1. 25.
(6일간)

신민경 개인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개 인

일상그림일기'를 테마로 현재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소중한 일상을 유화를 통해 그림일기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한 미술작품 40여점 전시

※ 전시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1
2021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쉼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3	4	5
10	11	12
17 ● 어린이 뮤지컬〈렛잇고 시즌2〉 11:00 / 14:00 / 16:00	18	19
24	25	26 ● 장원우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15:00
31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WED	THU	FRI	SAT
		1	2
6	7	8	9
13	14	15	16 ● 어린이 뮤지컬〈렛잇고 시즌2〉 11:00 / 14:00 / 16:00
20	21	22	23
27	28	29 ● 제213회 마스터피스 시리즈 1 20:00	30

1.30~2.17 무대시설물 정기점검

공연일정

2
2021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쉼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2
7	8	9
14	15	16
21 ●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미정 ● SMI청소년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22	23 ● 기획연주회 가곡의 밤_한국&독일 19:30
28		

WED	THU	FRI	SAT
3	4	5	6
10	11	12	13
17 1.30~2.17 무대시설물 정기점검	18	19 ● 기획공연 미정 ●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미정	20 ●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미정
24	25	26 ● 기획공연 「新비나리」 미정	27

전시일정

1
2021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쉼
- 야외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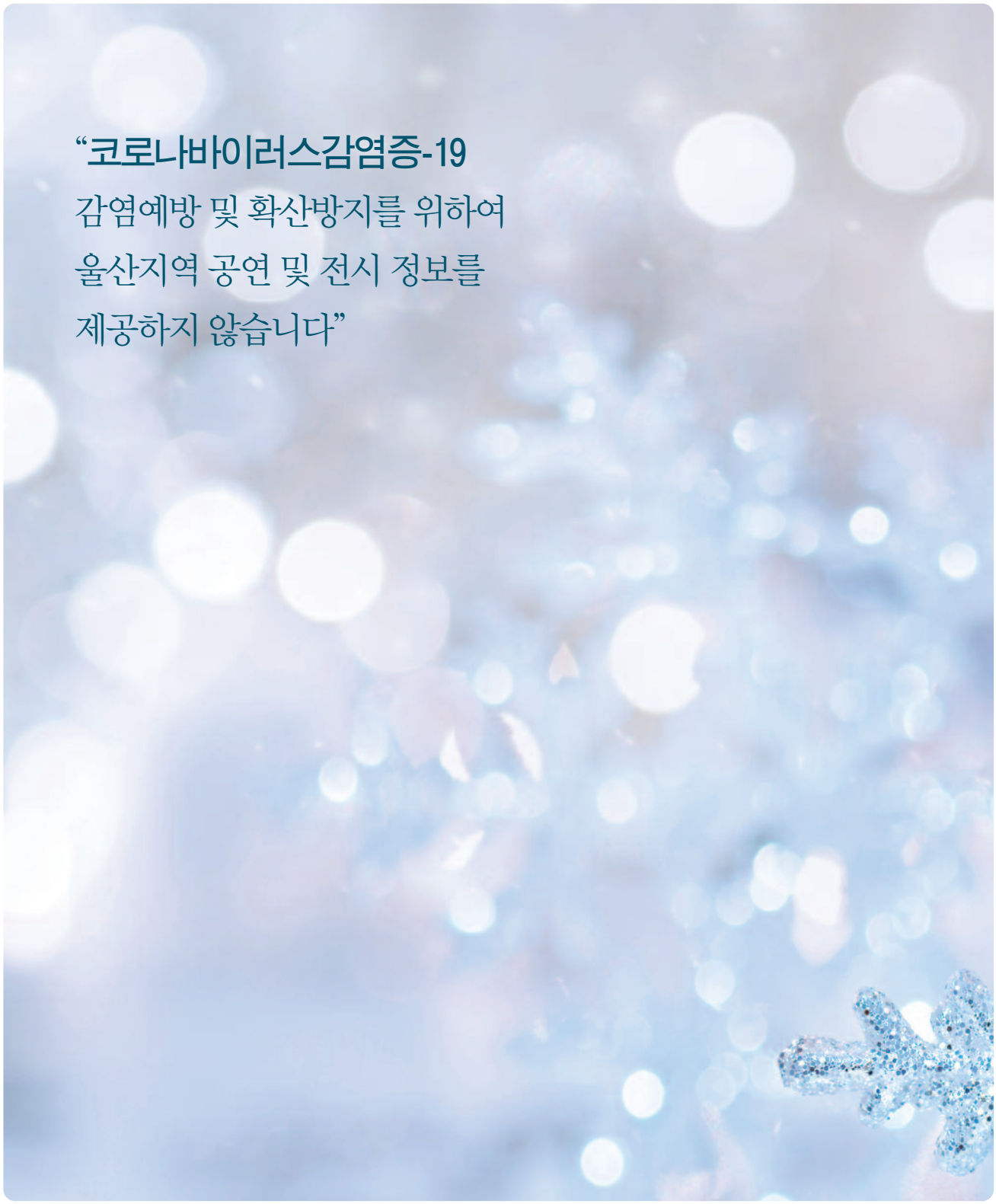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3 ● 야외설치조형전	4 ● 야외설치조형전	5 ● 야외설치조형전
10 ● 야외설치조형전	11 ● 야외설치조형전	12 ● 야외설치조형전
17 ● 야외설치조형전	18 ● 야외설치조형전	19 ● 야외설치조형전
24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5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6 ● 야외설치조형전
31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WED	THU	FRI	SAT
		1 ● 야외설치조형전	2 ● 야외설치조형전
6 ● 야외설치조형전	7 ● 야외설치조형전	8 ● 야외설치조형전	9 ● 야외설치조형전
13 ● 야외설치조형전	14 ● 야외설치조형전	15 ● 야외설치조형전	16 ● 야외설치조형전
20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1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2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3 ● 야외설치조형전 ● 신민경 개인전
27 ● 야외설치조형전	28 ● 야외설치조형전	29 ● 야외설치조형전	30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052)226-8242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남구 삼산로 282 / 052) 960-1000
표준 객실요금의 15~5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신라 스테이
남구 삼산로 200 / 052) 901-9000
표준 객실요금의 60~7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스타즈호텔 울산
남구 남중로 65 / 052) 922-4000
표준 객실요금의 50~70% 할인된 제휴요금
식당 · 베이커리 1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북구 강동산하2로 7 / 052) 980-1101
표준 객실요금의 60~7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문의 바람)
유료회원

밀레(달동점)
남구 삼산로 151 / 052) 260-0022
정상가의 10%할인(용품 제외)
유료회원

라비타(LAVITA)
남구 월평로 197 / 052) 245-1111
정상가의 10~20%할인
유료회원

㈜ MH컨벤션 (구) 목화웨딩홀
남구 삼산로 226 / 052) 260-5555
웨딩패키지 20% 할인, 사진촬영 50% 할인
뷔페 인당 2,000원 할인(웨딩 뷔페 인당 1,000원 할인)
유료회원

소풍가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052) 275-3579
이용금액 5%할인
유료회원

디엘리 커피
남구 신정로33번길 30 / 010-8348-4800
음료 5%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유료회원

울산진산면세점
중구 번영로 363 / 052) 281-5555
면세 판매가에서 18%할인
유료회원

"더 많은 혜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협약점 게재 순서는 업종과 협약일 기준입니다.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75-9623~8, https: //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예매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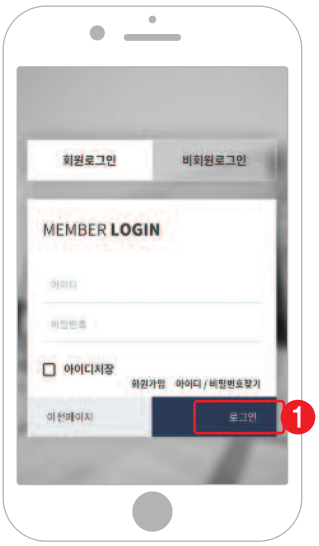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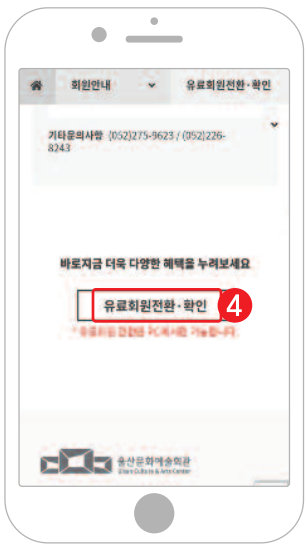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쳐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회원증 발급 및 회원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문화예술회관 한식뷔페
토스카 오픈

착한밥집 밥묵자가 한식뷔페 **토스카**로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정성을 담은 손맛, 다양한 새로운 메뉴
매일 바뀌는 집밥으로 든든하게 식사하세요.

위　　치 : 회관 전시동 1층(구 쉼터)
운영시간 : 11:00 ~ 20:00
이용금액 : 7,000원(일반), 4,000원(미취학 아동)
※쿠폰 10장 구매시 60,000원(현금가), 도시락 주문 배달 7,000원(2인 이상)
전화번호 : 052) 260-0922 ▶레스토랑 이용 시 1시간 주차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시간이 임시적으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카페
CAFE 923 오픈

923의 커피는 큐그레이더(커피감정사)가 직접 엄선한
스페셜티 커피를 블랜딩하여 만든 독립 블랜딩입니다.

위　　치 : 회관 전시동 1층(구 쉼터)
운영시간 : 10:00 ~ 21:00 (Last Order - 20:30)
전화번호 : 052) 266-0923
▶카페 이용 시 1시간 주차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시간이 임시적으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